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 무형문화유산 공모 선정

서남권 최대 규모...국무총리상 수상도

2억원 투입...2024년까지 체계적 육성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가 최근 문화재청 주관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장흥군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국비 1억4,000만원, 지방비 6,000만원 등 2억원을 투입해 고싸움 줄

당기기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사업완료 이후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는 국가, 시도 무형 문화재로 지정 추진된다.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는 우리나라 서남해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싸움으로 전통적으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열렸다.

1872년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시작됐으나, 일제강점기에 중단됐다 1970년 5월 20일 제1회 장흥 보림문화제를 계기로 부활했다.

같은 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매년 장흥군민의날 보림문화제에

서 재현돼 오다가 근래에는 고품화 등으로 인원과 준비의 어려움으로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다.

고싸움은 줄패장이 ‘밀어라’하고 소리 치면 줄꾼들은 합성을 지르며 상대의 고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이렇게 몇 번이고 맞부딪히면서 상대편의 고를 어떻게 하든지 땅에 닿게 하면

이긴다.

참가자들은 고싸움이 끝나면 고를 풀어 서부와 동부로 편을 나눠 줄당기기를 이어서 진행한다.

장흥군은 탐진강 동편에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실제 고를 전시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매년 20개씩, 총 5년간 100종목의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흥군의 미래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대표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성, 지역 농산물 공공소비 늘린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취약계층 영양 개선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국비 포함 총 사업비 6억8,200만원 규모이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지원금은 1인 가구 월 4만원, 2인 가구 월 5만7,000원, 3인 가구 월 6만9,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꾸러미 상품을 구성해 배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지자체·농협 협력 모델인 ‘장성형 푸드플랜’을 구축한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2년(2020년-2021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군은 광주권 로컬푸드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민원서비스 친절 평가 향상

장흥군이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으며 친절도를 비롯한 민원 서비스가 전년 대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민원 행정관리기반·민원행정활동·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 민원 서비스 실적을 평가했다.

장흥군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같은 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

은 장흥군은 민원서비스 친절도 향상 및 체계화에 집중해 이번 성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군 청렴도 내·외부 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은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추진’, ‘전체 읍·면에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민원인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제도 개선안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추억공작소 조감도.

/함평군 제공

‘함평추억공작소’ 문화유물전시관 새 명칭으로

함평문화유물전시관이 지역 주민과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이름을 찾았다.

함평군은 18일 “함평엑스포공원에 있는 문화유물전시관의 새로운 명칭으로 ‘함평추억공작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평추억공작소’는 관광객들이

70~80년대 함평의 옛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낸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군민 등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실시, 총 7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 심

사 등을 거쳐 ‘함평추억공작소’, ‘추억에(愛) 함평전지’, ‘머뭇다, 추억 in 함평’ 등 최종 3건이 선정됐다.

이어 3건에 대해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평추억공작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명칭으로 결정됐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현우농원 최진원 대표, 쌀 90포 기탁

나주시이장동은 최근 현우농원 최진원 대표가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90포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진원 대표는 “코로나19와 혹독한 추위를 어렵게 견뎌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쌀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

동체 실현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수년째 수도권 지역 백화점 마트 등에서 지역 농·축산물 판매전을 열어 먹거리 유통을 통한 나누고 배려를 자처,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백미는 이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홀몸노인, 한부모 세대 등 생계위기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주=조승권 기자



장흥 부산면, 이웃돕기성금 기부 릴레이

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소향)는 최근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김현석 부산면 노인회장 50만원, 김상순 전 부산면 새마을부회 회장 100만원, 악명오로 200만원을 기탁한 지역민이다.

김현석 노인회장과 김상순 전 새마을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화합과 인정이 넘쳐 살기 좋은 부산면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이웃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장흥=이옥현 기자



금성농공단지협의회, 장학금 100만원 전달

혹독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금성농공단지협의회(회장 한동욱)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동욱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회

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기탁한 장학금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성농공단지협의회는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14년부터 장학금 전달을 시작해 누적 6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담양=정일남 기자